

온라인에서 원하는 페이지를 빠르게 여는 능력은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누적 효율은 크다. 북마크가 몇십 개 수준일 때는 브라우저 즐겨찾기로도 버틸 수 있다. 문제는 링크가 수백 개로 불어나는 순간 시작된다. 업무용 자료실, 팀 위키, 고객 대시보드, 정책 문서, 테스트 서버, 그리고 개인 관심사까지 얹히면 폴더 트리가 깊어지고 검색 정확도도 떨어진다. 여기서 링크 허브가 빛을 본다. 이름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여러 웹 서비스와 페이지를 모으고, 사람마다 맥락에 맞게 분류하고, 빠르게 열기 위한 공용 관문을 세운다. 이 글은 국내에서 많이 회자되는 주소파크, 주소아트, 주소허브를 중심으로, 주소모음 생태계를 실제로 굴러본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설계와 운영 팁을 정리했다. 상황에 따라 주소탑, 주소북, 주소친구, 주소월드, 주소나라, 주소모아, 여기여, 주소야 같은 유사 서비스도 참고할 수 있다. 핵심은 도구 선택보다 구조와 습관이다.

## 링크 허브가 풀어주는 세 가지 문제

첫째, 링크 탐색 시간을 줄인다. 탭을 열고, 검색을 치고, 비슷한 이름의 다른 문서를 눌러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미세한 손실이 하루에 수십 번 발생한다. 링크 허브는 한 화면에서 의미 있는 묶음으로 보여주고, 바로가기 키나 단축명으로 즉시 이동시키는 데 유리하다.

둘째, 팀 전달이 쉬워진다. 신입 온보딩 문서, 프로젝트 자료실, 회의록 모음, 공용 드라이브 경로를 일일이 설명하는 대신 허브의 섹션 링크 하나만 공유하면 된다. 주소허브나 주소파크처럼 공개 페이지 구성이 가능한 툴이라면 더 편하다.

셋째, 컨텍스트 전환을 줄인다. 업무별로 세션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허브에 카테고리를 분리해 놓으면 머릿속 모드 전환이 빨라진다. 예를 들어 고객 A 관련 자료는 파란색 그룹, 실험용은 회색 그룹, 내부 규정은 붉은색 그룹으로 고정하면 색만 봐도 목적지가 떠오른다.

## 툴 개요와 선택 기준

브랜드마다 성격 차이가 있다. 주소파크는 구성 요소가 단순해 첫 구축 속도가 빠르다. 큰 박스에 링크를 채우고, 최소한의 커스터마이징만으로도 깔끔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다. 주소아트는 이름처럼 표현 폭이 넓다. 아이콘, 색상, 카드 스타일, 섹션 배치 조합이 다양해 개인 취향이나 브랜드 가이드를 반영하기 좋다. 주소허브는 협업과 공개 공유에 강점이 있다. 권한 관리, 섹션별 공개 범위, 이력 관리, 방문 통계 같은 실무형 기능이 필요할 때 선택지가 된다.

유사 계열로 주소탑이나 주소북은 위젯과 간단한 검색 중심의 전개가 강하고, 주소친구, 주소월드, 주소나라 같은 이름들은 커뮤니티형 링크공유나 테마별 큐레이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용이라면 주소모아, 빠른주소 같은 경량 서비스가 부담 없다. 여기여, 주소야처럼 키워드 중심 포털형도 있다. 다만 여러 툴을 중첩하면 관리 비용이 급절로 늘어난다. 조직 단위로 정착시키려면 메인 툴 하나, 보조 툴 하나 정도로 간결하게 가져가는 편이 유지보수에 유리하다.

선택 기준은 다섯 가지다. 첫째, 생성과 수정의 마찰이 낮을 것. 링크 추가 창이 느리거나 태그 입력 과정이 번거로우면 금세 방치된다. 둘째, 검색의 관용성과 즉시성. 대소문자, 초성, 일부 단어로도 원하는 결과가 떠야 한다. 셋째, 공개와 비공개의 경계선. 팀 외부 공유가 많은가, 내부 제한이 많은가를 먼저 정해 권한 체계를 고른다. 넷째, 모바일 접근성.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링크를 열 일이 잦다면 반응형 레이아웃이 필수다. 다섯째, 백업과 이식성. 내보내기 포맷이 표준적이고, 혹시 서비스를 옮겨도 주소 손실 없이 이행 가능한지 확인한다.

## 통합 구조 설계, 오버엔지니어링을 피하는 법

링크 허브를 세 개쯤 동시에 쓰다 보면 어느새 같은 링크가 여러 곳에 중복되고, 어느 허브가 최신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시작점에서 구조 원칙을 딱 하나 정해두면 뒤가 편하다. 허브를 역할별로 분리한다. 운영 허브, 큐레이션 허브, 실험 허브. 주소허브를 운영 허브로 두고 팀 공용과 공개 공유를 담당하게 한다. 주소아트를 큐레이션 허브로 쓰면 디자인 가이드나 외부 소개용 랜딩에 어울린다. 주소파크는 실험용 또는 개인 북마크의 신속 캡처장으로 가볍게 돌린다.

이때 핵심은 링크의 정본을 어디로 볼지 정하는 것이다. 같은 페이지를 여러 허브에 넣을 수 있지만, 메타데이터나 태그, 설명의 원본은 한 곳만 책임지게 한다. 내 경험상 주소허브를 정본 저장소로 두고, 주소아트와 주소파크

에는 리다이렉트 카드 또는 얇은 미러를 두는 방식이 관리 스트레스를 크게 줄였다. 이렇게 하면 설명 변경이나 태그 정리가 필요할 때 주소허브만 수정하면 끝난다.

## 네이밍과 분류, 초반에 저지르기 쉬운 실수

처음엔 누구나 폴더를 기능이나 부서로 나눈다. 마케팅, 세일즈, 기술, 운영. 익숙해서 빠르지만 중장기에는 겹침이 많아진다. 특정 고객 프로젝트가 모든 부서에 걸치면서 링크가 사방으로 흩어진다. 더 실용적인 기준은 과업 흐름이다. 시작하기, 만들기, 검토하기, 배포하기, 지원하기처럼 단계로 묶는다. 새로 합류한 동료도 어디서 무엇을 먼저 열어야 하는지 바로 감을 잡는다.

네이밍은 길게 쓰는 편이 낫다. 브라우저 탭 타이틀은 잘리지만 허브 내 카드 제목은 길어도 상관없다. "고객 A-정산 정책 v2 (2025)"처럼 목적, 대상, 버전, 연도를 함께 넣으면 검색 정확도가 올라간다. 반대로 장식적인 이모지 남발은 피한다. 두세 개 정도로 의미가 확실한 것만 쓰면 눈에 빨리 들어온다. 예를 들어 녹색 체크는 최종본, 주황색 삼각형은 검토 필요, 회색 점은 보류 상태.

태그는 10개 내외로 최소화한다. 태그가 많아질수록 검색의 힘이 떨어진다. 부득이하게 세부 태그가 필요하다면 접두사로 묶는다. "cli-", "api-", "ops-" 같은 three자 접두사면 리스트에서 자동 정렬도 깔끔해진다.

## 주소파크를 캡처 인박스로 굴리는 방법

주소파크는 속도가 빠르고 구성 절차가 단순하다. 이 장점을 살려 인박스처럼 쓰면 좋다. 웹을 돌아다니다 발견한 문서를 임시로 던져 넣고, 하루에 한 번 정리하는 흐름이다. 수집 단계에서는 제목을 자동으로 넣되, 최소한의 메모만 붙인다. 예를 들어 "계정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사례 - 대규모 트래픽 전환 관련"처럼 훗날 검색에 걸릴 키워드만 적는다.



정리 규칙은 간명할수록 좋다. 주소파크에 들어온 링크는 일주일 안에 주소허브로 승격시키거나, 가치가 낮다면 삭제한다. 승격할 때는 제목 표준을 적용하고, 태그를 붙이고, 설명을 두세 문장으로 보강한다. 이렇게 하면 주소파크는 가벼운 작업대처럼 유지되고, 주소허브에는 검증된 링크만 쌓인다.

시각적 배치도 중요하다. 주소파크 첫 화면에 최근 10개, 중요 즐겨찾기 10개, 병행 프로젝트 3개 정도를 고정 카드로 묶어두면 손이 자동으로 움직인다. 좌측에는 검색, 우측에는 임시 보관함을 두고, 모바일에서는 최근 항목을 상단에 띄워 이동 중에도 빨리 열 수 있게 한다.

## 주소아트로 스토리 있는 링크맵 만들기

주소아트는 표현력이 뛰어나서 랜딩 페이지 느낌의 링크맵을 만들기가 쉽다. 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프로젝트를 소개할 때 유용하다. 나는 화면 상단에 프로젝트의 목적과 기간, 핵심 지표를 간단히 쓰고, 바로 아래에 링크 카드를 단계별로 배치한다. 예를 들어, 1주차 목표 링크들, 2주차 리뷰 자료, 데모 영상, 피드백 폼을 순서대로 놓는다. 처음 보는 사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름을 따라가며 필요한 링크를 차례로 열 수 있다.

시각 요소는 최소화하되 일관성을 지킨다. 브랜드 컬러 2색, 중립 회색 1색, 포인트 색 1색 정도로 제한한다. 아이콘은 시스템 아이콘과 커스텀 일러스트가 섞이면 산만하다. 가능하면 한 계열로 통일하고, 이미지는 200 KB 이하로 줄여 로딩 속도를 보장한다. 링크 허브의 체감 품질은 곧 속도다.

주소아트를 큐레이션 용도로 쓸 때 자주 받는 질문은 바로 유지보수다. 정보가 자주 바뀌는 항목은 직접 링크를 박아두지 말고 주소허브의 섹션 링크를 가리키게 만든다. 그러면 주소아트는 늘 깔끔하게 보이면서, 실제 주소 변경은 주소허브에서만 처리하면 된다.

## 주소허브로 운영 체계 세우기

주소허브는 팀 작업의 중추를 맡기기 좋다. 권한과 이력, 통계가 있으니 링크가 정책 문서나 감사 대상 자료로 취급될 때도 안심이다. 운영 팁을 몇 가지 적어본다.

- 접근 권한은 링크 레벨이 아닌 섹션 레벨에 맞춰라. 링크마다 권한을 쪼개기 시작하면 관리가 미친다. 민감 영역과 일반 영역을 분리하고, 민감 영역 안에서만 세분화한다.
- 설명란을 문서처럼 쓰지 말고 메타데이터로 써라. 내용 요약 1문장, 작성 혹은 소유 팀, 변경 주기, 담당자 연락처 정도면 충분하다. 길면 읽지 않는다.
- 링크 품질 기준을 만든다. 죽은 링크는 7일 안에 복구 혹은 제거, 리다이렉트는 ninety일 유예 후 정리, 외부 스토리지 링크는 접근 권한 테스트를 월 1회 실시. 이런 간단한 규칙이 허브 전체의 신뢰도를 지킨다.

주소허브의 검색 고도화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태그 외에 제목 접두사, 예를 들어 [POL] 정책, [RUN] 운영, [EXP] 실험, [REF] 참고 같은 카테고리 표식을 두면 초성 검색에도 잘 걸린다. 검색 결과를 최신순, 사용량순, 별점순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량순 정렬을 온보딩 문서에서 기본값으로 안내하면 신입이 빨리 핵심 링크를 익힌다.

## 중복과 분열을 막는 동기화 루틴

세 플랫폼을 병행하면 링크가 자연스럽게 새끼를 치기 시작한다. 같은 문서를 팀원이 주소아트에 예쁜 카드로 올리고, 다른 팀원이 주소파크에 급히 붙여넣고, 누군가 주소허브에 정식 등록을 한다. 어느 순간 세 곳의 제목과 설명이 다르게 변한다. 한 달만 지나도 신뢰가 떨어진다.

이 문제는 도구가 아니라 루틴이 해결한다. 매주 30분짜리 링크 리뷰 미팅을 잡는다. 목적은 단 하나, 중복과 변경 정리. 리뷰 직전에 자동 보고서를 뽑아온다. 지난 7일에 생성된 링크, 지난 30일에 클릭 0회인 링크, 404가 검출된 링크, 설명이 a hundred and fifty자 이하인 링크. 이 네 가지만 보면 된다. 리뷰는 가볍게 끝나고, 뒤처리는 담당자가 일괄 처리한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허브의 수명이 몇 배 길어진다.

## 검색, 단축명, 키보드 중심의 빠른주소 경험

빠른주소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지향점을 보여준다. 마우스로 스크롤하며 찾는 방식보다 키보드로 바로 여는 방식이 훨씬 빠르다. 세 플랫폼 모두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전략이 있다.

첫째, 단축명을 정한다. 고객 A의 대시보드는 a.sprint, 내부 위키 홈은 wiki.domicile, 장애 보고 템플릿은 inc.tpl 같은 짧은 키를 제목 첫머리에 붙인다. 허브 검색창에서 단축명만 치면 바로 첫 결과가 잡힌다.

둘째, 브라우저 검색 엔진 바로가기를 쓴다. 크롬 기준으로 주소창 키워드 h를 주소허브 검색으로 맵핑하고, p를 주소파크, a를 주소아트로 지정한다. 주소창에 h 공백 키워드를 치고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허브의 검색 결과로 곧장 이동한다. 익숙해지면 링크 허브를 열지도 않고 바로 목적지에 도달한다.

셋째, 모바일 홈 화면에 핵심 허브 섹션을 바로가기로 추가한다. 모바일 브라우저의 추가 기능을 이용하면 아이콘처럼 붙는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여는 페이지는 홈 화면으로 끌어내리는 편이 결국 시간을 절약한다.

## 퍼포먼스와 가용성, 사소하지만 체감이 큰 요소

링크 허브가 느리면 결국 사람들은 직접 주소를 치거나 검색엔진으로 돌아간다. 작은 최적화가 몰입을 지킨다. 이미지와 아이콘은 가능한 벡터를 쓰고, 썸네일을 캐시한다. 외부 임베드는 최소화한다. 유튜브 썸네일만 써도 충분한데, 풀 플레이어를 박아 넣으면 첫 렌더가 꿀렁거린다. 폰트는 시스템 폰트 스택을 쓰는 쪽이 무난하다. 고급 폰트는 이쁘지만 [주소친구](#) 가끔 모바일에서 첫 페인트가 1초 이상 늦어진다.

가용성 측면에서, 주소허브처럼 운영 중심 틀은 가끔 외부 이슈나 인증 장애가 날 수 있다. 중요한 섹션은 정적 백업을 반기마다 만들어 두자. CSV 내보내기과 간단한 HTML 렌더 스크립트를 통해 오프라인 카탈로그를 별도로 보관하면 좋다. 재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탐색이 가능하다.

## 보안과 개인정보, 링크도 데이터다

링크 허브에는 문서 링크뿐 아니라 테스트 서버 주소, 관리자 콘솔, 모니터링 패널, 내부 대시보드가 들어온다. 로그인 보호가 되어 있다 해도 링크 자체가 메타 정보를 누출할 수 있다. 쿼리스트링에 토큰이 붙어있거나, 고객 사명과 내부 코드가 노출된 URL은 외부 공유용 섹션에 올리면 안 된다. 주소아트처럼 공개 큐레이션을 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

민감 링크는 주소 자체를 감추고, 주소허브의 리다이렉트 링크를 거치게 만들면 어느 정도 보호가 된다. 클릭 로그를 통해 접근 패턴을 확인할 수도 있다. 주소북이나 주소모아처럼 경량 서비스에 민감 링크를 넣는 건 피하자. 인증과 감사가 약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추적이 어렵다.

## 운영 지표, 과하게 복잡할 필요는 없다

허브 운영을 데이터로 관리하려고 하면 대시보드가 금방 복잡해진다. 실전에서는 몇 가지 간단한 지표만으로 충분하다. 일별 활성 사용자, 상위 20개 링크 클릭 수, 신규 링크 수, 삭제 링크 수, 404 비율. 이 다섯 가지만 월간 추이를 본다. 특정 링크의 클릭이 급감했다면 링크가 죽었거나 팀의 프로세스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신규 링크는 늘고 404 비율도 높다면 온보딩이 잘못됐을 수 있다. 링크 품질 기준을 재알림하고, 자동 검사 주기를 당긴다.

지표는 사후 분석보다 피드백 루프에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상위 20개 링크를 주소허브 첫 화면 상단에 고정시키면 대부분의 사용자가 더 빨리 목적지로 간다. 반대로 거의 열리지 않는 링크는 과감히 하단으로 내리고, 90일간 클릭 zero이면 보관함으로 옮긴다.

## 개인과 팀, 경계선 설정의 기술

개인 링크와 팀 링크가 섞이면 갈등이 생긴다. 팀 허브에 개인 생산성 앱이나 관심사 링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금세 난장판이 된다. 선을 그어야 한다. 주소파크는 개인 실험과 임시 모음, 주소허브는 팀 운영과 공용 자료, 주소아트는 외부 전시와 큐레이션. 이 경계를 온보딩 문서에서 명확하게 정의한다. 링크 제출 폼에는 소유자, 공개 범위, 보존 기간을 필수 필드로 넣는다. 보존 기간은 과감하게 붙이는 편이 좋다. 6개월, 12개월, 상시. 만료가 되면 자동 알림이 가고, 소유자가 갱신하거나 제거한다.

개인의 창의성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팀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은 샌드박스 구역을 만드는 것이다. 주소허브에 '실험실' 섹션을 따로 두고, 여기에는 형식 제약을 풀어준다. 대신 실험실의 링크는 검색 기본 범위에서 제외하고, 클릭 통계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실험이 검증되면 운영 섹션으로 승격시킨다.

## 점진적 마이그레이션, 여러 서비스에서 하나로 모을 때

이미 주소탑, 주소북, 주소친구 등 다양한 플랫폼에 링크가 흩어져 있다면 한 번에 옮기기보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안전하다. 먼저 모든 서비스에서 내보내기를 시도한다. 일부는 JSON, 일부는 HTML 북마크, 일부는 CSV 일 것이다. 포맷이 제각각이라면 중간 포맷으로 통일하는 스크립트를 간단히 만든다. 키는 제목, URL, 태그, 설명, 생성일, 마지막 접근일. 생성일과 접근일이 없으면 추정값을 넣되, 원본 정보를 별도 메모로 남긴다.

주소허브를 최종 수용처로 정했다면, 첫 주에는 최상위 a hundred개 핵심 링크만 수동 정리로 옮긴다. 수동이 번거롭지만 이 과정에서 네이밍 표준과 태그 체계를 확정할 수 있다. 둘째 주부터는 스크립트로 벌크 업로드를 하

고, 404 검사와 중복 검사를 자동으로 돌린다. 마이그레이션 기간에는 주소아트에 임시 안내 페이지를 만들어, 새 허브 위치와 변경 사유, 자주 찾는 섹션 바로가기를 크게 걸어둔다. 사람들은 기술보다 안내에 더 안심한다.

## 교육과 온보딩, 10분 동영상이 가장 잘 먹힌다

문서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10분짜리 화면 녹화가 빠르다. 첫 2분은 허브의 목적과 철학, 다음 five분은 실제 사용 시나리오, 마지막 three분은 자주 묻는 질문.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하면 주소허브 첫 화면에서 오늘의 회의 링크와 대시보드를 연 뒤, 주소파크 인박스에서 전날 저장한 아티클을 골라 두 개를 승격시킨다" 같은 구체적 흐름을 보여준다. 교육 자료 안에는 주소모음, 링크모음 같은 키워드를 일부러 넣어 검색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든다. 내부 검색뿐 아니라 외부 검색에서도 노출되면 신입이 스스로 찾아본다.

## 유지보수 캘린더, 작은 주기로 시스템을 살린다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루틴을 미리 적어두면 유지보수는 가볍다. 월 1회는 죽은 링크와 권한 점검, 태그 통합. 분기 1회는 최상위 구조 재검토와 상위 20개 링크 다시 고정. 반기 1회는 전체 내보내기 와 오프라인 백업, 주소아트 디자인 리프레시. 반복 주기만 지켜도 허브는 낡지 않는다.

## 현실적인 문제와 대처법

- 사일로화: 팀마다 별도 허브를 만들기 시작하면 사일로가 생긴다. 해결은 조직 전체 공용의 얇은 메타 허브를 하나 뒤서 각 팀 허브의 문지기 역할을 시키는 것. 이 메타 허브는 섹션 소개와 규칙만 담고 각 팀으로 연결한다.
- 소유자 부재: 소유자가 퇴사하거나 이동하면 링크가 고아가 된다. 링크 생성 시 반드시 보조 소유자를 지정하고, 소유자 없이 30일 지난 링크는 자동으로 팀 공통 계정에 귀속시키는 정책을 둔다.
- 브랜딩 과잉: 주소아트에서 디자인을 과하게 손보다가 본질, 즉 빠르게 여는 목적을 잃는다. 미리셋 1개를 정해서 변형을 최소화하라.
- 모바일 불편: 카드가 너무 크면 스크롤 지옥이 된다. 모바일에서는 카드 높이를 절반으로 줄이고, 두 줄 제목을 넘어가면 말줄임으로 처리한다.

## 빠른주소를 위한 두 가지 실전 체크리스트

아래 두 목록은 실제 팀에서 반복 검증하며 다듬은 핵심만 뽑았다. 필요시 그대로 복사해 내부 위키에 붙여도 무방하다.

- 단축명 표준
- 접두사 세트: [POL], [RUN], [EXP], [REF]
- 필수 키: 프로젝트별 3자 코드 + 기능, 예: xyz.dash, xyz.docs
- 중복 금지, 1초 내 구별 가능해야 함
- 소문자 기준, 점 구분 사용
- 분기 변경 시 한 번에 일괄 치환
- 주간 링크 리뷰 절차
- 신규, 무클릭, 404, 단문 설명 4종 보고서 확인
- 중복 후보 병합 또는 리다이렉트 설정
- 상위 20개 재배치, 낮은 품질 링크 보관함 이동

- 주소아트 외부 노출 섹션 변경사항 반영
- 주소파크 인박스 비우기

## 예시 워크플로우, 하루 사용 리듬

오전 nine시 20분, 주소허브 첫 화면을 연다. 상단 고정 카드 두 개를 먼저 클릭해 오늘 회의실 링크와 서비스 상태 대시보드를 띄운다. 9시 30분 스탠드업이 끝난 뒤, 주소파크 인박스를 훑어 어제 저장해 둔 기술 글 다섯 개 중 두 개를 주소허브로 승격시킨다. 제목을 표준에 맞춰 바꾸고, [REF] 접두사와 태그 ref, api를 붙인다. 링크 품질 규칙에 맞게 설명을 2문장으로 정리한다.

점심 후에는 주소아트의 프로젝트 랜딩을 열어 외부 파트너에게 보낼 링크를 확인한다. 바뀐 일정에 맞춰 첫 줄의 기간 텍스트만 고친다. 실제 문서 주소는 주소허브 섹션 링크이므로 별도 수정이 필요 없다. 오후 4시, 브라우저 주소창에서 h를 치고 공백, xyz dash를 입력해 고객 A 대시보드를 연다. 방문 통계 그래프가 떨어지는 것이 보여 분석 링크를 바로 옆의 [RUN] 운영 섹션에서 연다. 검색과 이동, 수정이 5분 안에 끝난다.

퇴근 전 10분, 자동으로 메신저에 올라온 주간 링크 보고서를 보고 404로 잡힌 링크 두 개를 처리한다. 하나는 경로 변경으로 리다이렉트 설정, 다른 하나는 외부 문서 삭제로 삭제 처리. 남은 three분은 주소파크 인박스를 비우며 내일 볼 거리 두 개만 남긴다. 이 정도면 허브가 삶을 돕는다.

## 대체와 보완, 유사 서비스와의 공존

모든 팀이 주소파크, 주소아트, 주소허브를 그대로 쓸 필요는 없다. 주소탐의 위젯 스타일이 현장 업무에 더 맞을 수도 있고, 주소북의 간결한 검색이 좋을 수도 있다. 주소친구나 주소월드, 주소나라 같은 커뮤니티형은 외부 자료 큐레이션에 편하다. 주소모아는 개인 취미 링크를 쌓아두기 좋고, 여기여와 주소야처럼 포털형은 공개 소개 페이지에 어울린다. 핵심은 한 곳을 정본으로 택하고, 나머지는 뷰어이자 관문으로 쓰는 전략이다. 그래야 링크의 생명주기가 단순해진다.

## 마무리 노트, 유지 가능한 속도로 달린다

링크 허브는 한 번 멋지게 꾸미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오랜 기간 작게 손보는 살림에 가깝다. 주소파크로 가볍게 담고, 주소허브에서 질서를 세우고, 주소아트로 보여준다. 주소모음과 링크모음의 세계는 끝이 없다. 딱 필요한 만큼, 팀의 속도에 맞춰서만 켜다. 규칙은 적을수록 지켜진다. 빠른주소는 기술보다 습관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자. 링크는 길을 잇는 도구다. 길이 잘 보이면,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는다.